

세플러⁺원

VOL. 81 / SUMMER & AUTUMN 2025

Pioneer



SCHAEFFLER



Pioneer

We pioneer motion에서
'Pioneer'는 세플러가 가진
강력한 기술력의 다른 이름입니다.
꾸준한 혁신을 통한 기술 진보.
세플러는 항상 한 발 더 앞서 나가고,
지금에 안주하지 않으며,
혁신으로 다듬은
제품과 서비스로 고객을 만납니다.

세플러*원 바로가기



사보 <세플러+원>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필자의 의견으로 세플러코리아와 의견이
다를 수 있으며, 사용 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발행일 2025년 9월 12일(통권 제81호)
발행인 이병찬
편집인 민유정, 윤솔지, 이현기, 김채정
발행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파크원 타워1 32F
기획·디자인 PEOPLE PAGE(대표전화 02.6674.0111)



Contents

- 06 Scene**
세플러와 함께 더 넓은 세계로, 에벨릭스코리아
- 12 Team Schaeffler**
One Schaeffler, Team Ewellix Korea
- 16 Master**
VLS 사업 부문 윤요석 전무
- 20 Schaeffler New**
지속가능한 모빌리티를 위한 혁신, 녹스(NOx) 센서
- 22 VS**
이천 R&D 소속 2인의 창원 R&D 전격 탐구
- 28 S. Culture**
EVERGREEN 12기 봉사단의 몽골 활동기
- 32 Together**
전주 공장 강석 사원 가족의 임실치즈테마파크 체험
- 36 Schaeffler Ground**
5~8월 주요 뉴스
- 40 Schaeffler Challenge**
최애 사진 챌린지 두 번째 이야기
- 43 Thanks & Quiz**

Pioneering the Future



길 없는 곳에 길을 내는 것이 개척입니다. 세플러는 혁신으로 변화를 이끌고, 강력한 기술력으로 미래의 표준을 만들어 갑니다. 끊임없는 도전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가능성을 현실로 바꾸어 갑니다.



세플러와 함께
더 넓은 세계로

에벨릭스코리아

2023년 7월,

글로벌 리니어 모션(Linear Motion) 솔루션 전문 기업
에벨릭스가 세플러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 중심에서 에벨릭스코리아는 '세플러'라는
더 넓은 글로벌 네트워크와 브랜드 신뢰를 등에 업고
새로운 시장과 기술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아시아퍼시픽 시장을 총괄하는 기술 허브이자
맞춤형 리니어 솔루션 전진 기지인 에벨릭스코리아의 하루는
곧, 내일을 만나는 하루입니다.



경기도 군포에 자리한 에벨릭스코리아는
사무동과 자재동, 조립동이 어깨를 맞대고 있습니다.

영업팀이 고객의 요구를 받으면
설계팀이 기구와 제어의 두 축으로 아이디어를 펼치고,
구매팀이 적시에 부품을 모읍니다.

자재동의 선반에는 전 세계에서 온 부품이
제자리를 지키며 출격을 기다립니다.
조립동에서는 6M가 넘는 장축 모듈이 조립되고,
품질검사를 통과하면 세상으로 나갈 준비를 합니다.



에벨릭스코리아의 강점은
단순한 부품 생산이 아닙니다.

기구와 제어를 아우르는
'시스템 단위' 개발, 100% 맞춤형 설계,
그리고 고객이 원하는 시점에
딱 맞춰 제공하는 신뢰.

그 배경에는 부서 간 경계 없이
움직이는 팀워크와 "납기와 품질,
둘 다 놓치지 않는다"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제어부 설계팀
유영길 리더

BU Industrial Actuators & Screws Asia Pacific
조철희 이사

기구부 설계팀
한두원 리더

구매팀
임희경 팀장

BD Linear Motion Korea 영업팀
조원근 BD장

EWELLIX



전방위 비즈니스의 관문

BD Linear Motion Korea 영업팀

BD Linear Motion Korea 영업팀은 국내의 전방위 고객을 상대로 기술 솔루션을 제안하고 사업을 이끈다. 조원근 BD장을 중심으로 6명의 인력이 방위산업, 로봇자동화, 디스플레이, 배터리,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의 고객사와 소통하며 수주 기반 산업 구조 안에서 지속적인 확장을 모색하고 있다. 조원근 BD장은 영업팀의 핵심 요소로 '적응력'과 '소통'을 꼽는다.

"영업팀과 설계팀 간의 협업은 회사의 목표 달성과 고객 요구를 명확히 실현하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1차 영업에서 고객사와의 미팅을 통해 고객의 사양과 핵심 정보를 파악하고 내부 공유를 통해 프로젝트의 목표와 범위를 설정합니다. 설계팀에서는 영업팀으로부터 받은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기술적 실현 가능성을 검토한 후 필요한 리소스를 파악합니다." 영업팀의 업무는 단순한 판매 활동을 넘어 고객 요구를 가장 먼저 감지하고 내부 설계 및

개발팀과의 연결고리를 만드는 일까지 포함한다. 예컨대 고객 요구 사항이 파악되면 설계팀과 함께 프로젝트의 방향을 설정하고, 기술 협의를 통해 설계 콘셉트를 확정하며 수주까지 이끄는 구조다. 최근에는 국내 로봇 기술 선도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AMR과 협동로봇(Cobot)에 자체 개발한 리니어 모듈(Linear Module)을 적용하는 성과를 냈다. 변화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도 유연하게 적응하고, 내부와 외부 모두와의 소통을 강화해가는 영업팀은 새로운 세플러의 팀워크 구조에서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프런트 라인이다.

기술력의 핵심 기반, 설계팀

BU Industrial Actuators & Screws Asia Pacific에 소속되어 있는 설계팀은 기구부와 제어부로 나뉘어 제품 설계부터 제어 시스템 개발, 고객 맞춤 솔루션까지 전체 시스템을 함께 개발한다. 한두원 리더가 이끄는 기구부 설계팀은 제품의 기능과 외형을 정의하고, 프로토타입 개발,

One Schaeffler

2023년 7월, 글로벌 리니어 모션(Linear Motion) 솔루션 전문 기업 에벨릭스가 세플러의 가족이 되었다. 그 중심에 있는 에벨릭스코리아는 아시아퍼시픽 시장을 총괄하는 기술 허브이자 맞춤형 리니어 솔루션의 전진기지다.

Team Ewellix Korea

테스트, 인증 대응까지 수행한다. 설계 제안은 단순히 고객 사양 반영에 그치지 않고, 잠재적인 니즈까지 반영한 창의적 솔루션 제공에 초점을 맞춘다.

또 하나의 축인 제어부 설계팀은 모션 컨트롤러, 서보 모터, HMI(Human Machine Interface), 캐비닛 설계 등 실제 제품이 작동하도록 구성하는 기술을 구현한다. 최근에는 이더넷(Ethernet) 기반의 고속 통신기술, 다양한 필드버스(Fieldbus) 시스템 등을 적용해 보다 정밀하고 유연한 시스템 구현이 가능해졌다. 대표 제품인 3축 지그로봇(CTU)과 슬라이드키트(SLIDEKIT)에는 이 두 팀의 통합 역량이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

에벨릭스코리아 설계팀의 가장 큰 특징은 기계 설계와 제어 설계를 한 공간에서 실시간으로 협의하며, 단일 프로세스로 개발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제품 개발 속도가 빨라지고, 고객 요구에 대한 피드백도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다. 실제 고객사 납품 전 시운전까지 모두 자체적으로 진행하며, 현장 방문을 통한 즉시 대응도 설계팀의 업무 범위다.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이를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서 팀워크는 필수입니다. 설계라는 일은 혼자서는 완성할 수 없니까요.”

제어부 설계팀 유영길 리더의 말처럼 설계팀은 영업·생산·품질·구매 팀과의 밀접한 협업 구조를 통해 단일 제품이 아닌 ‘통합 시스템 단위의 솔루션’을 실현하고 있다.



에벨릭스코리아는 사무동, 자재동, 조립동을 한 공간에 두어 제품 개발 및 생산 공정을 최적화했고, 부서 간 효율적인 의사소통 환경을 조성해 고객만족에 최선을 다한다.

정확하고 빠르게, 협업의 힘

에벨릭스코리아의 사업장 구조는 독특하다. 사무동, 자재동, 조립동이 모두 한곳에 있으며, 이는 리니어 모션 제품의 빠른 대응을 위한 필수 조건이기도 하다. 고객 대응 속도를 높이기 위해 설계·영업·구매·품질·생산 팀이 한 공간에서 실시간 소통하며 일하고 있다.

생산동에서는 리니어 모듈 및 다축 시스템을 생산하며, 슬라이드키트와 같은 신제품에 대한 테스트까지 함께 진행한다. 자재동은 글로벌 공장에서 공급된 부품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아시아퍼시픽 지역 전체의 퀵 센터(Quick Center) 역할을 수행하며 공급 안정성을 확보한다. 그리고 구매와 품질 부서는 세플러 기준에 맞춘 인증과 재고 시스템을 운영하며 제조 효율과 안전까지 함께 고려한 조율을 진행한다.

하나의 제품은 기획에서 납품까지
최소 5개 팀의 협업을 거치며,
이 모든 과정이 빠르고 정확하게
이어지는 시스템이 바로
에벨릭스코리아가 지향하는 조직의 모습이다.

ONE-Team Ewellix Korea

세플러는 베어링 및 자동차 부품 분야에서 세계적 명성을 가진 기업입니다. 에벨릭스가 세플러의 일원이 되면서, 세플러의 강력한 브랜드 인지도와 기술적 신뢰도를 등에 업고 시장에서 더욱 견고한 입지를 다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철희 이사

2014년 출범한 VLS Korea는 슬로건인 'Profitable Growth'에 응답이라도 하듯 올해까지 연평균 성장률(CAGR) 7.2%라는 꾸준한 성장을 이루고 있다. 수장인 윤오석 전무는 그 비결을 '젊은 추진력'에서 찾았다.

젊기에 가능한 Lean & Agile



SCHAEFFLER

Vehicle Lifetime Solutions

윤오석 전무
OSUK YOON

EAST ASIA (JAPAN & KOREA)

Q VLS Korea는 출범 11년 차로 세플러 내에서 비교적 젊은 조직입니다. 사업 부문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A VLS Korea는 2014년 출범한 신생 사업 부문으로 IAAM Sales & Marketing, OES(Original Equipment Supplier) Sales 등의 영업조직과 BD·PGM & Q·SCM 등으로 구성된 조직입니다. 세플러 내에서 비교적 젊은 사업 부문으로 규모가 크진 않지만 빈틈없이 단단한 조직입니다. 주요 사업 부문은 Business Partners(대리점)를 통해서 일반 시중 정비소 등에 우리의 제품과 정비 솔루션을 제공하는 IAAM 영업과 OE(Original Equipment) 제품을 Mobis, GMK 등의 고객사에 제공하는 OES 영업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Q 오토모티브 애프터마켓에서 세플러만의 특징점은 무엇인가요?

A 세플러의 VLS 사업 부문은 수입 고급 프리미엄 자동차에 적용되는 OE 공급자로서 프리미엄 브랜드 인지도를 자랑합니다. 이 부분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시판 영업팀을 IAAM Sales & Marketing team으로 확대·개편했으며, 별도 마케팅 전문가를 채용해 마케팅 및 CRM 활동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세플러는 자동차에 장착되는 대부분의 주요 부품을 제조, 공급함으로써 폭넓은 제품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VLS 사업 부문에서는 레거시 브랜드인 FAG, INA, LuK는 물론 SNAP(External Sourcing)를 통해 AGM 배터리, 파츠 클리너, 와이퍼 블레이드 등 B2C 시장 수요도 공략하며 시장 확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비스테코의 녹스(NOx) 센서를 애프터마켓에 론칭함으로써 전장품 수요에도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세플러 VLS 사업 부문은 고객만족을 위해 단순히 제품 위주의 공급망뿐만 아니라 제품 설명, 검색을 포함한 정비 솔루션 온라인 플랫폼인 랩엑스퍼트(REXPERT)를 운용하면서 고객에게 한층 더 다가가고 있습니다.

Q VLS 전용 브랜드인 세플러 트루파워의 대표 제품군과 향후 라인업 계획이 궁금합니다.

A 세플러 트루파워는 제품 포트폴리오와 비즈니스 확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론칭한 브랜드로, 국내에서는 2022년 냉각수를 시작으로 그리스, 파츠 클리너, 차량용 AGM 배터리와 보조배터리를 출시했습니다. 세플러의 품질 기준에 적합하도록 개발, 출시해 애프터마켓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대표 제품으로는 가장 최근 시장에 선보인 AGM 배터리를 들 수 있습니다. 최상의 성능과 내구성을 위해 세플러의 엔진 부품 개발 경험이 녹아든 대표적인 제품입니다. 어떠한 기후, 환경에서도 최고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격리판을 적용해 충전 성능, 저온 시동성, 내구성을 향상했습니다. 향후에도 다양한 제품을 시장에 선보일 수 있도록 현재 검토 개발 중이며, 곧 출시될 프리미엄 차량을 위한 와이퍼 제품과 차량용 소화기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Q 오토모티브 애프터마켓 최신 동향에 맞는 VLS Korea의 정책 및 사업 계획은 무엇인가요?

A 최근 몇 년간의 주요 동향은 브랜드, 고객 경험 향상, 그리고 디지털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VLS Korea는 3가지 정책 및 전략으로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고객 기반을 확장함으로써 시장 내 입지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통합 마케팅 캠페인에서는 브랜드 메시지를 통일하고 오프라인 및 온라인에서 일관된 캠페인을 전개해 세플러 VLS 사업 부문의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 검색 엔진, 자동차 전문 사이트 등을 통한 디지털 광고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자동차 관련 전시회 및 행사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마케팅 분야에서는 블로그, 페이스북, 유튜브 등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을 위한 콘텐츠를 제작해 소비자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플러 VLS 사업 부문의 정비 솔루션인 랩엑스퍼트를 통해 제공하고 있는 기술적 설명이나 제품 사용법과 관련된 콘텐츠가 반응이 좋습니다.

또 세플러 트루파워 부동액, AGM 배터리 등을 e-커머스 플랫폼에 론칭하면서 이를 사용하는 B2C 고객에게도 세플러 VLS 사업 부문을 홍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지속적인 제품 개발과 함께 e-커머스 비즈니스 성장을 통한 브랜드 인지도 향상에 더욱 매진할 예정입니다.



Vehicle Lifetime Solutions

VLS Korea는 'Profitable Growth'라는 슬로건 아래 세플러코리아 경영진, Business Partners, 유관부서의 강력한 지원 덕분에 2014년 출범 이후 올해까지 꾸준한 성장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원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윤오석 전무



Profile

윤오석 전무는 1994년 입사 후 부산지점 Industrial 영업사원으로 시작해서 KBC 수출, MRO영업 등을 담당했습니다. Industrial AP Sector Head, Automotive Bearings OEM Sales Manager 등을 거쳐 현재 VLS East Asia (Japan & Korea) Head를 맡고 있습니다.

세플러가 VLS 사업 부문과 비테스코의 포트폴리오를 통합하면서 지속가능한 모빌리티 솔루션 개발을 앞당기고 있다. 올 7월 국내 시장에 첫 출시한 녹스(NOx) 센서는 통합애프터마켓 첫 제품이다.

지속가능한 모빌리티를 위한 혁신 녹스^{NOx} 센서

NOx Sensor



포트폴리오 확장의 핵심

비테스코와의 합병은 세플러 전방위에서 시너지를 발휘하고 있다. 세플러 VLS 사업 부문에서는 제품 포트폴리오 통합을 전략적으로 추진하며 장비 전문성과 전장 혁신을 순조롭게 결합해 새로운 시장 개척의 마중물을 만들었다. VLS 사업 부문은 고정밀, 녹스(NOx) 센서, 컨트롤 유닛, 첨단 메카트로닉 액추에이터 등 배출가스와 관련된 최첨단 기술을 도입해 애프터마켓 시장에서 확실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

이 구성품들은 엄격한 배기가스 규정 준수는 물론 자동차 제조사 및 규제 기관에게 적절한 진단 방법을 제공하며, 우수한 정비 능력을 보장하고 CO₂ 저감 및 드라이브 시스템 효율 제고에도 기여한다.

비테스코는 세플러와의 통합 이전부터 배기가스 후처리 시스템 중 핵심 부품인 녹스(NOx) 센서 분야 기술을 선도해 왔다. 국내 시장에서는 올 7월 애프터마켓에 론칭하며 눈길을 끌고 있다.

녹스(NOx) 센서는 해외 각 OE(Original Equipment) 자동차 제조사 개발

2021 - 2023



Step 1. Launching TruPower

부동액 Coolant
그리스 Grease
파트 클리너 Parts Cleaner

2024



Step 2. Product Expansion

상용차를 위한 부동액 Coolant for CV
내연기관 차량용 배터리 Battery for ICE vehicle
와이퍼 블레이드 Wiper blade

2025



Step 3. Enhancement TruPower

에어컨 컴프레서 A/C Compressor
발전기 Alternator

조건에 맞춰진 엄격한 테스트를 거쳤으며, 높은 정확도와 내구성, 다양한 제품 라인업이 특징이다. 비테스코는 2002년 이후 1억 4,000만 개 이상의 녹스(NOx) 센서를 생산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그 성능을 인정받았다.

녹스(NOx) 센서는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기후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배출가스 규제 준수에 동참함으로써 자동차 산업계와 세플러가 목표로 하는 탄소중립 계획에 기여할 수 있는 핵심 사업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애프터마켓에서의 세플러 브랜드 위상과 영향력도 점차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녹스(NOx) 센서가 그릴 그린 혁신

승용 및 상용차의 배기가스 배출 모니터링을 하는 녹스(NOx) 센서는 자동차의 핵심 부품이다. 디젤 자동차에서 주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NOx)은 환경오염의 주원인 중 하나다. 이를 줄이기 위해 차량 내부에서 요소수를 분사하면 배기가스 내에서 질소산화물과의 화학 반응으로 질소(N₂)와 물(H₂O)로 분해된다. 이때 녹스(NOx) 센서는 실시간으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의 양을 측정하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요소수의 분사량을 조정한다. 즉, 녹스(NOx) 센서는 차량에서 배출하는 배기가스의 질소산화물 농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해 요소수와 연료, 공기 혼합비 등을 조절함으로써 배출가스 저감은 물론이고 원활한 엔진 작동과 차량 연비 향상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번에 론칭한 녹스(NOx) 센서는 Gen 2.5(12V), Gen 2.5(24V), Gen 2.8(12&24V), Gen 4.0p(12V)까지 총 4종으로 전 차종에 적합한 260여 개의 세부 품목(SKU) 라인업으로 효율적인 배출가스 저감 솔루션을 제공하는 게 특징이다. 무엇보다 오랜 기술력을 바탕으로 완성된 고품질 세라믹 센서를 활용했기 때문에 품질면에서도 앞선다.

VLS Korea는 녹스(NOx) 센서 국내 론칭을 시작으로 기존 완성차 전용 서비스망에서만 제공하던 자동차 부품을 국내 애프터마켓 시장을 통해 다양하게 출시할 예정이다. 또한 공식 온라인 정비 서비스 플랫폼인 렉스퍼트(REXPERT)를 통해 정비 업체들에게 기술 교육과 정보를 제공, 정비 기술 발전에도 능동적이고 전문적으로 대응하도록 지원하는 등 원스톱서비스를 구축했다.

“이번 론칭으로 그동안 해외 OE 자동차 제조사들에게만 제공하던 비테스코의 녹스(NOx) 센서가 애프터마켓을 통해 고객들이 좀 더 쉽게 접할 수 있게 된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애프터마켓 시장의 대표 브랜드인 세플러와 차량 전장 부품으로 널리 알려진 비테스코가 통합 브랜드로 론칭하는 것은 양사 통합을 통한 대표적인 시너지 효과입니다.” VLS Korea를 이끄는 윤오석 전무의 말처럼 녹스(NOx) 센서 론칭을 시작으로 국내 애프터마켓 자동차 부품 시장에서 세플러의 운신은 더욱 확장될 것이다.

이천 R&D 소속 2인의

이천 R&D CT SWI 소속의 2년 차 임태성·안무진 님이 세플러의 상징인 창원 R&D를 찾았다. 같은 R&D 파트지만 전동 중심의 이천 사업장과는 달리 연구와 생산은 물론 테스트까지 완벽하게 구비한 창원의 환경은 두 사람에게 새로운 자극제가 되었다.

창원 R&D 전격 탐구



임태성 님

이천 E&D CT SWI

CT ASW 소속이다가 사업부별 ASW를 통합하면서 SWI 소속이 되었습니다. EMS, VPC, EMR4 등 여러 제어기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조직에서 저는 VPC의 ASW 개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안무진 님

이천 E&D CT SWI

SWI 소속으로, Electric Control Unit 개발을 주로 전담하고 있으며, Developer, Project Architect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소프트웨어의 Robustness를 증진 시키기 위해 Static/Dynamic Test를 케이스 별로 설정해 수행합니다.



김현용 수석연구원

창원 R&D Validation 팀

Test 파트에서 일하고 있으며 세플러코리아에서 생산하는 모든 종류의 베어링에 대한 시험을 주로 담당합니다. 고객 개발 시험, 내부적으로 진행하는 선행 과제, 관계사 간 시험 의뢰, 양산 신뢰성 시험 등을 수행합니다.



창원 3공장에 자리한 창원 R&D는 제품 초기 개발부터 양산 전 단계에 이르기까지 고객과 소통하며 사양을 선정하고 설계, 시제품 제작, 내부 시험 및 고객 개발 시험을 진행하는 등 모든 과정을 아우르는 인하우스(In-House) 시스템을 갖췄다. 또한 개선된 제품을 만들기 위해 여러 분야의 선행 개발 활동도 병행한다. 이날 견학은 이 중에서 시험실과 측정실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파트별로 Validation 팀의 김현용 수석연구원, 재료기술팀 강민욱 수석연구원, 화공기술팀의 백상하 수석연구원의 설명이 더해지면서 재미와 전문성을 높였다. 이천 사업장에서 전동 관련 소프트웨어만 다룬 안무진·엄태성님은 하나하나 새롭고 신기한 듯 시종일관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견학에 임했다.

모든 제품을 검증하고 평가 Validation 팀

김현용 수석연구원 _ Validation 팀은 세플러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을 검증하고 평가하는 일을 합니다. 크게 Test, RPA, CAE까지 3개 파트로 나뉘는데요. 우선 Test 파트에서는 실제 제품을 구동해 내구 및 기능에 대해 평가하며, RPA는 내부 시험과 고객 시험, 그리고 실제 필드에서 사용했던 제품을 분석해 보완점 및 개선점을 찾는 업무를 합니다. CAE는 컴퓨터를 이용해 해석하는 파트로, 실제로 구현이 힘들거나 제품이 없는 단계에서도 간접적인 분석을 진행합니다. 이 중 제가 속한 Test 파트에서는 세플러코리아에서 생산하는 모든 종류의 베어링에 대한 시험을 합니다. 고객 개발 시험, 내부적으로 진행하는 선행과제, 관계사 간 시험 의뢰, 양산 신뢰성 시험 등을 수행합니다.

엄태성 _ 측정 파트에서는 특히 정확한 측정 방법이 중요할 텐데요. 베어링의 손상 상태를 분석하는 특정 장비가 인상적인데, 이런 정확한 측정 기술이 제품의 품질 향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김현용 수석연구원 _ 베어링 구동 특성상 시험 하나에만 몇 개월 투자하는 경우가 있는 만큼 전반적으로 업무 호흡이 깁니다. 그 기간 지속적으로 시험기 구동 환경에 대한 체크가 필요하고 한꺼번에 여러 시험을 진행할 때는 일정 관리가 중요합니다. 시험 완료 후 샘플 분석 및 결론 도출에는 신뢰성 및 확률에 대한 사전 지식이 필요하죠. 그 과정에서 베어링 손상 상태를 분석하는 장비는 데이터 도출의 신뢰성을 높여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세플러 모든 제품의 재료 관리 재료기술팀

강민욱 수석연구원 _ 재료기술팀은 베어링 및 세플러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가장 기초가 되는 철강부터 단조, 열처리 등의 프로세스까지 아울러서 지원하는 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경쟁사 제품 벤치마킹, 시험 및 필드에서 발생한 파손 분석 및 독일 본사와의 협업을 통해 배터리, 휴머노이드 로봇 등의 신기술 분야도 지원합니다. 저는 그중에서도 여러 원재, 프로세싱 및 신기술 분야를 맡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제강사(POSCO, SeAH, SANYO, KOBE 등)의 품질 관리와 소재 개발 업무, 협력사 단조 기술 지원 및 배터리 소재에 대한 지원을 담당합니다.

안무진 _ 베어링 품질 평가 및 강성 시험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피로 시험이나 베어링 재질 평가 시에 경화 깊이, 개재물 측정 등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요소가 많은데, 그에 따른 어려움은 없나요?



강민욱 수석연구원

창원 R&D 재료기술팀

재료기술팀은 베어링 및 세플러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의 가장 기초가 되는 철강부터 단조, 열처리 등의 프로세스까지 아울러 지원합니다. 저는 여러 원재, 프로세싱 및 신기술 분야를 맡고 있습니다.

강민욱 수석연구원 _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특히 베어링의 잔류 응력 및 잔류 오스테나이트 측정, 경화 깊이 측정 등은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렇지만 기술 발달과 함께 많은 분석 장비가 자동화됨에 따라 작업자가 일일이 아날로그 방식으로 분석하지 않고 자동화 기계를 이용한 후 결과에 대한 확인만 진행하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덕분에 남는 시간에 다른 업무를 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지속가능성을 위한 탐구 화공기술팀



백상하 수석연구원

창원 R&D 화공기술팀

윤활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로 화학 분석을 통한 관련 샘플의 상태 파악 및 벤치마킹 등을 진행하며 최근에는 지속가능성의 일환으로 연삭유의 CO₂ 저감 기술 및 바이오 오일을 활용한 그리스 개발 등 유제 개발 또한 진행 중입니다.

백상하 수석연구원 _ 화공기술팀은 크게 고무, 플라스틱과 같은 폴리머 분야와 오일, 그리스와 같은 윤활 분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중 저는 윤활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로 화학 분석을 통한 관련 샘플의 상태 파악 및 벤치마킹 등을 진행하며, 이를 통해 품질·생산성 향상과 효율성 극대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속가능성의 일환으로 새로운 기술과 트렌드를 조사, 개발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연삭유의 CO₂ 저감 기술 및 바이오 오일을 활용한 그리스 개발 등의 유제 개발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안무진 _ 화학 파트에는 특히 신기한 장비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중 분석 및 리포트를 빠르게 출력해 수월한 업무 처리를 돕는 장비가 눈에 띄었는데요. 반면 이게 사용 가능할까 싶은 오래된 장비들도 인상적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백상하 수석연구원 _ R&D 설비에 연결된 몇몇 PC가 오래된 모델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는 장비가 특정 운영체제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최신 PC로 교체하면 오히려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오래되긴 했지만 작동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엄태성

“창원 R&D의 테스트 환경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물리적으로 실차 환경을 구현한 테스트 베드 덕분에 제어 소프트웨어의 검증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안무진

“견학을 통해 극한의 테스트 케이스를 설정해 품질을 끌어 올리는 여러 과정을 보면서 품질 향상을 위한 테스트 케이스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EVERGREEN

12기 봉사단의 몽골 활동기

지속가능성을 향한 세플러코리아의 오랜 여정에 청년들이 동참했다. 올해로 12번째를 맞은 에버그린(EVERGREEN) 봉사단이 기후재난과 취약한 주거 환경으로 시름하는 몽골 가초르트 마을을 찾아 상생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봉사를 향한 열정으로 가득했던 발대식

5월 10일 서울 사무소에서 열린 에버그린(EVERGREEN) 12기 발대식 현장에는 긍정의 에너지가 흘러넘쳤다. 서로를 소개하고 앞으로의 활동 계획을 설명하는 이날의 시간,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과 적극성이 한데 어우러져 밝은 분위기를 그려냈다. “에버그린은 단순한 대학생 봉사를 넘어, 세플러코리아의 도전과 상생의 가치를 함께 실천하고 그 가치와 사회적 책임을 연결하는 소중한 연결고리입니다.” 새로운 12기 봉사단의 출범을 앞두고 세플러코리아가 되새긴 그 의미가 현장에서도 생생히 전해져 왔다.

이들의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자세’. 이번 봉사단은 모집 단계부터 경쟁률이 무려 25대 1을 기록했을 뿐 아니라, 많은 지원자가 단순한 경험을 넘어 사회에 기여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그중에서도 ‘왜 하필 에버그린인가’에 진정성 있게 답한 지원자 13명과 함께하면서 발대식 현장이 더욱 뜨거운 열기로 큰 감동을 안겼다는 후문이다.

발대식에서는 에버그린 봉사단이 마음껏 ‘열정’을 발산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졌다. 세플러코리아의 가치를 어떻게 전파할 것인가를 두고, 단원들은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교환하며 봉사에 대한 지향점을 찾아갔다. 봉사단의 큰 틀을 세플러코리아가 구성했다면, 세부 기획부터 교육에 필요한 도구 제작은 봉사단이 직접 맡았다. 단원들이 주어진 미션에 적극 나서며 ‘에버그린 12호’의 순조로운 출발을 알렸다.

몽골 현지에서 펼쳐진 교육 봉사의 시간

마침내 8월, 에버그린 봉사단이 몽골 가초르트 마을의 학교에 도착했다. 8월 21일부터 26일까지 5박 6일간의 여정을 펼친 이곳은 교육의 빈자리가 특히 큰 지역이다. 유목민의 전통 주거 형태 ‘게르(천막)’는 화재에 취약한 구조로 되어 있는 데다, 혹독한 기후재난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이에 대처할 안전·보건 교육이

세플러코리아가 실현해온 상생과 도전의 가치를 품은 에버그린 대학생 봉사단이 올해는 국제 사회라는 더 넓은 무대에서 모험을 펼쳤다.

12기 EVERGREEN



부족한 것. 봉사단이 전 세계 많은 곳 중 특별히 이곳을 찾은 이유는 분명했다. 에버그린 봉사단은 이번 활동이 유목 생활로 지속적인 교육을 받기 힘든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환경, 화재예방, 응급처치 교육을 준비했다. 뿐만 아니라 한국전통문화 교육과 미니 운동회, 벽화 봉사 등도 계획해 진정한 교감의 장을 마련했다.

그렇게 시작한 첫 교육 봉사 시간, 단원들은 언어와 문화의 장벽 탓에 바짝 긴장하기도 했지만, 곧 봉사단에게 마음을 열고 교육에 임하는 학생들을 보며 힘을 내기 시작했다. 학생들과 직접 눈을 마주치며, 발대식 이후 몇 주에 걸쳐 준비한 교구와 소품을 활용하며 설명을 계속했다. 응급처치를 위해 화상 상처를 물에 식히고 붕대를 감는 시연도 해보이며 그 순간에 몰입했다. 학습 이후의 시간은 즐거운 놀이 시간. 직접 몸을 움직이고, 만들고, 뛰어놀며 서로 깊이 교감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단원들은 '성공적으로 교육 봉사를 마치자'라는 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으며, 서로 어색할 법도 했지만 자연스럽게 마음을 나누고 감정을 교류하는 모습으로 깊은 인상을 남겼다.

먼 타국, 몽골에 전한 세플러의 가치

올해 봄부터 시작한 에버그린 12기 봉사단의 약 6개월간의 대장정이 지난 8월 말 한국에서의 해단식과 함께 막을 내렸다. 이번 봉사는 2013년부터 세플러코리아가 '사함께하는 사랑밭'과 10여년 간의 인연으로 계속해온 에버그린 봉사단의 중요한

이정표가 되어줄 시간이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6년 만에 재개한 해외 봉사로, 직접적인 대면을 통해서만 느낄 수 있는 감동의 순간이 이번 활동에는 가득했다.

봉사단과 함께한 세플러코리아 김채정 프로(마케팅 & 브랜딩)는 "에버그린은 세플러코리아의 '가치'를 실천하는 살아있는 플랫폼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봉사를 넘어, 사람과 사랑을 잇고, 기업과 사회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큰 관심과 따뜻한 응원으로 더 많은 분이 여정에 동참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라며 그 의미를 다졌다.

향후 12기 에버그린 봉사단의 활약은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블로그에 카드뉴스와 동영상 등 다양한 형태로 공개할 예정이다. 몽골에서 느낀 봉사의 가치와 기쁨을 한국에 있는 세플러코리아의 가족에게도 전하고자 하는 이들의 활동에도 많은 응원을 바란다.



에버그린 12기 단원들의 말.말.말

새로운 도전이었던 만큼 정말 의미 있고 기억에 남는 시간이었습니다. 5박 6일 동안 함께 교류하며, 몽골 주민들의 순수함과 한국에 대한 사랑을 느꼈습니다.

정한석 단원

고범주 단원

봉사를 넘어 제가 더 많이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짧지만 값있던 시간 속에서 나눔의 가치를 마음에 새길 수 있었습니다. 여정을 함께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현지 학생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마음을 나누고 교감했던 경험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많은 것을 배우며 성장했고, 좋은 분들과 잊지 못할 추억도 쌓아 행복했습니다.

황서영 단원

안산 사업장 BD 엔진 & 트랜스미션 시스템 영업 이복숙 마스터의 자녀, 남상민 님이 에버그린 12기 봉사단에 단원으로 함께했다. 세플러코리아의 상생 가치가 맺어준 특별한 인연을 소개한다.

Mini Interview



작은 나눔에서 큰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남상민 단원

여러 경험을 통해 다양한 각도로 세상을 보고 싶은 열린 마음의 소유자 남상민입니다. 지난 2월 전역 후 복학 전까지 무엇을 할까 고민하던 중 어머니께 에버그린을 추천받았습니다. 면접 때 다른 출중한 지원자들을 보며 기대를 내려놓았기에, 합격 전화를 받고 한참을 환호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하며 느낀 봉사란 '제가 받은 사랑과 행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과정'입니다. 작은 나눔이지만 제게는 기쁨이고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이번 활동을 통해 그 믿음을 함께해 뜻깊었습니다.

아직 어리다고만 생각했는데 준비하고 성취하는 모습이 놀랐습니다. 상민이가 인생에서 또 하나의 역사를 써 내려가는구나 싶어 대견했습니다. 우리 아들 파이팅!



BD 엔진 & 트랜스미션 시스템 영업 이복숙 마스터

전주 공장 강석 사원 가족의 임실치즈테마파크 체험

추억을 쌓고 기억을 나눈 하루

무더운 햇살 아래, 전주에서 한 시간 남짓 달려 도착한 임실치즈테마파크. 14년 차 부부인 강석 사원과 유애진 님, 두 아들 승찬(13)·승우(12) 군이 함께 만든 이날의 추억은 단순한 나들이 그 이상이었다.

가족이기에, 조금은 특별한 순간

전주 공장 설비보전팀 강석 사원은 팀명에서 가늠이 되듯 공장 전체의 전기설비와 자동화 장비 유지관리 업무를 맡고 있다. 업무 특성상 휴일 근무가 잦아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욱 소중하다. 틈나는 대로 나들이를 비롯해 가족여행을 자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가족과 즐겁게 지내고 싶어서 선택했다”는 오늘의 체험. 쏟아지는 햇볕 속에서도 네 식구는 환한 웃음으로 가족사진을 찍으며 ‘특별한 하루’를 시작했다.

“앗 뜨거워!” 사진 촬영을 위해 야외 벤치에 앉으려던 승찬 군이 외마디를 치자, 옆에 있던 승우 군이 까르르 웃으며 “앉는 척만 하라”며 나름의 조언을 했다. 그런 사소한 것도 즐거운 나이러서일까? 형제는 정오를 갓 넘겨 하루 중 가장 무더운 시간의 야외 촬영임에도 시종일관 장난을 치며 웃기 바빴다. 함께 무언가를 한다는 것, 그 자체로 즐거운 형제다.

쌀 피자 위에 얹은 가족의 개성

오후 1시 30분, 쌀 피자 만들기 체험이 시작되었다. 네 가족 앞에 1인용 피자 도우와 토핑 재료가 놓였고, 난생처음 피자 만들기에 도전한 승찬 군과 승우 군의 눈빛이 기대에 한껏 부풀어 있었다. 만드는 과정이 간단하긴 하지만 칼을 사용해야 하기에 강석 사원은 둘째 승우 군과, 아내인 유애진 님은 승찬 군과 짝을 이뤘다. 요리하는 걸 좋아해서 집에서 종종 가족을 위해 손수 밥상을 차리는 강석 사원은 이날도 섬세한 손길로 토핑을 올리고, 칼질하며 곁에 있는 승우 군을 도왔고, 만드는 것보다 먹는 걸 더 좋아하는 승우 군은 중간중간 토핑 치즈를 집어 먹으며 즐거움을 더했다.

INFORMATION

임실치즈테마파크 체험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성수면 도인2길 50

문의

063-643-2300

이용 시간

09:00~18:00, 월요일 휴무

입장료·주차료

무료

홈페이지

www.cheesepark.kr



Family Time

1인용 도우에 갈릭오일을 바르고
소스와 갖은 토핑을 올린 후
모짜렐라 치즈로 화룡점정을 찍자
오랫도록 기억될 네 가족만의
수제 피자가 완성되었다.

쌀 피자 만들기

강석 사원 가족은 평소에도 틈나는 대로 나들이나 여행을 다닌다. 최근에는 임실 봉어섬에 다녀왔고, 경주와 부산 등 대한민국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계절마다 추억을 쌓아왔다. 특히 임실은 전주에서는 한 시간 거리에,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많아 네 가족의 단골 나들이 지역이다. 비록 강석 사원의 업무로 여름휴가는 따로 낼 수 없지만, 이들의 다음 여행지가 어디가 될지 벌써 궁금해진다. “아이들이 커가면서 친구들과도 약속이 많아 오늘 같은 시간을 만드는 게 예전보다 어려워졌지만, 역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소중합니다.” 함께하는 하루하루가 아이들에게도, 부모에게도 오래도록 따뜻한 기억이 될 것일기에, 강석 사원은 아이들이 더 커버리기 전에 부지런히 다닐 계획을 세우고 있다.

임실치즈테마파크에서의 하루는 단순한 나들이를 넘어, 가족 모두에게 특별한 추억으로 남을 것이다. 특히 바쁜 업무로 자주 함께하지 못했던 아버지의 자리를 더욱 소중히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 아니었을까 싶다. 네 가족이 평범 아래에서도 환하게 웃으며 남긴 기념사진, 서로의 개성이 드러난 피자 만들기, 치즈관에서의 즐거운 순간까지. 함께여서 더욱 특별했던 하루가 조용히 저물었다.

토핑 치즈를 먹던 승우 군이 대뜸 최근에 먹은 아빠표 김치찌개 쪽갈비 얘기를 하며 “아빠 요리가 세상에서 가장 맛있다”고 엄지를 치켜세웠다. 같은 재료, 같은 도우이지만 네 가족이 만든 피자는 모양이 제각각이다. 승찬 군의 피자는 가운데가 붓긔 솟아 있고, 승우 군의 피자엔 치즈가 한가득이다. 각자의 성격과 취향이 피자 위에도 오롯이 드러난 듯했다. 가족이 함께한 30여 분, 반죽과 토핑 속에 웃음과 정성이 담긴 피자이기에 그 어떤 피자보다 특별한 맛일 것이다.

일상을 벗어난 소중한 ‘선표’

피자 체험을 마친 가족은 치즈역사문화관으로 향했다. 한국 치즈의 본고장에 왔으니 임실치즈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는 건 당연지사. 임실치즈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치즈 만드는 과정 등을 직접 눈으로 본 승찬 군과 승우 군은 동그란 눈을 더욱 크게 뜨고는 신기해했다. 강석 사원은 곁에서 아이들의 질문에 조곤조곤 설명하며 자상한 아با님의 면모를 보였다. 치즈역사문화관을 다 둘러본 네 가족은 커커이 쌀인 치즈 모형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가족만의 ‘인생네컷’으로 또 한번 웃음을 남겼다.



Schaeffler Grou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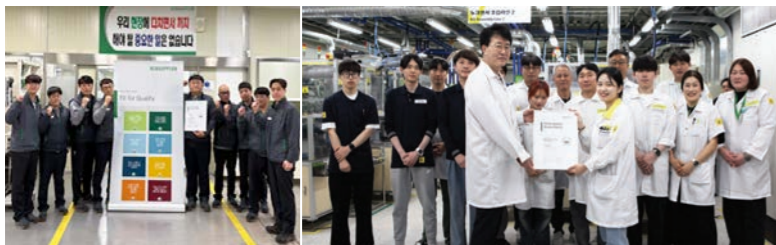
vol. 81
Summer & Autumn 2025



‘Fit for Quality Award’ 4관왕 뛰어난 품질 운영성과 인정받아

세플러코리아가 ‘Fit for Quality Award’에서 4관왕을 거뒀습니다. 시상식은 지난 4월 2일 부터 3일까지 독일 바이에른주의 헤르초게나우라흐에서 열렸습니다. Fit for Quality Award는 매년 세플러의 글로벌 사업장에서 ‘무결점(Zero-Defect) 목표’를 뛰어넘어 달성한 생산 세그먼트에 수여하는 상입니다. 무결점 목표를 유지한 기간에 따라 Platinum, Gold, Silver, Bronze로 나누어 수여하며, 평가 과정에서 외부고객 불만·내부고객 불만·내부 실패 비용·납품 수량·생산 금액 등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번 시상식은 지난 한 해 성과를 바탕으로 글로벌 전체에서 총 29개 세그먼트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그중 아시아퍼시픽 지역에서 수상한 4개 세그먼트가 모두 세플러코리아에서 나왔습니다. 최고 등급인 Platinum Award의 영예는 무려 72개월간 무결점을 달성한 안산 공장 베어링 세그먼트가 차지했습니다. 창원 공장은 Bronze Award로 2관왕을 달성했는데, Pinion Pin과 IB Bearing 세그먼트가 그 주인공입니다. 이천 공장에서는 통합 후 첫 수상이 나왔습니다. Mechatronic Sensors 세그먼트가 12개월 무결점을 기록하며 Bronze Award를 수상, 통합 이후 더욱 강력해진 세플러코리아의 품질 역량을 증명했습니다.



‘Automotive Bearings 워크숍’ 개최

세플러코리아의 BU 휠베어링 부문이 지난 5월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경남 통영 마리나 리조트에서 ‘Automotive Bearings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워크숍은 현대위아 IDA2용 휠 베어링 프로젝트 개발을 주제로, BU 휠베어링 BU장 이대경 이사를 비롯해 Pass.Car 팀과 Project Management 팀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작했습니다.

집중적으로 논의한 사항은 ▲품질 확보 방안 ▲저토크 기술개발 계획 ▲원가 절감 방안 ▲향후 투자 계획 등 프로젝트의 성공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과제입니다. 품질과 비용, 기술 혁신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전략과 지속 가능한 협업을 위한 방안도 주요 안건으로 다루어졌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각 팀의 성과와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부문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계기였으며, 도출한 합의사항과 실행 계획은 향후 프로젝트의 기반이 될 예정입니다. 참석자들은 “이번 논의를 통해 팀 사기와 동기부여를 크게 높일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창립 72주년 기념식 개최

지난 6월 10일 세플러코리아의 창립 72주년 기념식이 서울 여의도 사무소에서 열렸습니다. 비테스코 테크놀로지스 코리아 및 에벨릭스코리아와의 통합 후 개최한 첫 창립 기념행사로, 창원·전주·안산·이천·군포 사업장의 구성원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장 온라인 생중계를 병행했습니다.

올해 기념식에는 ‘함께 하나 되어 성장(Growing Together as One)’이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조직 통합에 대한 메시지를 가득 담았습니다. 이병찬 대표이사는 기념사를 통해 “세플러코리아는 확장된 비즈니스 포트폴리오와 고도화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객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해, 대체 불가능한 파트너가 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천 및 군포 사업장 대표의 축사와 함께 통합 실행 프로젝트의 각 단계를 소개하는 시간도 이어졌습니다.

현재 세플러코리아는 합병 이후 통합 실행 프로젝트를 다각도로 전개하며, 조직 간 협업을 통한 시너지 극대화 및 지속가능경영 기반을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기차, 공장 자동화와 휴머노이드 등 다양한 분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있으며, 생산과 공급망 부문에서는 각각 2030년과 2040년까지 기후 중립을 달성한다는 세플러 그룹의 목표에 맞춰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과 저탄소 구매, 서비스 확대에 나서는 중입니다.



이천 사업장 ‘제85회 Fit for Quality Day’ 개최

지난 6월 24일 세플러코리아의 ‘Fit for Quality Day’를 이천 사업장에서 처음으로 개최했습니다. 이는 올해로 9년째를 맞은 세플러의 대표적인 품질 행사로, 오랜 시간 변함없이 추구해 온 ‘Quality First’ 마인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이번에는 특히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더욱 흥미롭고 참여하기 쉬운 프로그램으로 구성해 참여한 직원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얻었습니다. 특히 하이라이트였던 품질 퀴즈 코너에서는 모든 참가자가 열정적으로 참여하며 ‘품질은 어렵고 딱딱하다’는 선입견을 깨뜨렸습니다. 이어 주요 품질 개선 사례로 ▲PowerBI 품질 모니터링 시스템 ▲HPCU 작업환경 개선 ▲글로벌 경험 공유를 직원들에게 소개했으며, 품질 우수 직원 22명에게는 JIDOKA Award를 수여했습니다. 이천 사업장과 함께한 이번 행사는 단순한 통합을 넘어 품질 측면에서의 진정한 ‘One Team’을 이뤘음을 보여주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이천 공장, EMR4 10만 대 생산 달성

세플러코리아가 이천 공장에서 EMR4(Electronics Motor Reducer, 4세대) 전동 액셀 드라이브 시스템 10만 대를 성공적으로 생산했습니다. 생산 시작(SOP) 이후 단 10개월 만입니다. EMR4는 고효율과 콤팩트함을 갖춘 전동 액셀 드라이브 시스템으로, 최신 전기차와 e-모빌리티 산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합니다. 콤팩트한 크기, 낮은 중량, 높은 출력 밀도, 뛰어난 효율성을 갖춘 덕분에 시장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으며, 특히 효율성과 NVH(Noise, Vibration, Harshness) 측면에서는 벤치마크 수준임을 입증하며 최종 고객에게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EMR4은 이천 공장의 전동 모터와 인버터를 세플러의 하우징, 기어박스 부품과 결합해 탄생한 제품입니다. 합병 이전부터 이어진 양사 간의 성공적인 협력의 결과로써, 통합된 회사의 공동 포트폴리오가 창출하는 시너지를 확고히 보여줍니다.





안산 공장, OV1 감속기 생산라인 가동

지난 6월 30일 세플러코리아의 안산 공장에서 OV1 감속기 생산라인의 본격적인 가동을 알리는 기념식이 개최되었습니다. 안산 공장이 기존 파워트레인 부품 제조 강자로서 보여준 역량을 전동화 부품까지 확장해 낸 중요한 전환점을 기념하는 자리였습니다. 기념식에는 세플러코리아 이병찬 대표이사를 비롯해 Oliver Wilhelmi - BD Electric Drives Korea 담당, Marco Reis - BU E-Axle Systems Korea 담당, 안산 공장 남형채 공장장, 박재환 세플러안산 전문직 노조위원장 등 관련 부문의 주요 리더십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감속기 생산라인은 2024년 1월 공실 준비 공사를 시작으로, 같은 해 8월부터 본격적인 생산 설비 설치에 착수했습니다. 이후 생산 시작(SOP)에 이르기까지 약 18개월간 안산 공장의 역량을 총집중해 구축했으며, 공정 설계부터 품질 인증까지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고정밀 생산 시스템을 완성했습니다. 최신 설비 도입은 물론, 자동화를 통한 작업 효율성과 품질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공정 혁신을 다각적으로 반영한 것이 특징입니다. 기존에는 해외에서 생산하던 감속기를 국내로 옮겨온 성공적인 로컬라이제이션 전략의 사례로도 평가됩니다.

감속기는 현재 이천 공장에서 생산 중인 EMR4 전동 액슬 드라이브 시스템의 핵심 부품 중 하나입니다. 이번 생산라인 가동으로 안산 공장과 이천 공장 간의 유기적인 생산 체계를 구축함에 따라 통합포트폴리오 시너지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천 공장, 생산성·안전성 강화 활동 전개

이천 공장은 여름휴가 기간을 맞아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3일까지 생산성과 안전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탄력적으로 전개했습니다. 먼저 정기 보전과 레이아웃 조정, 현장 보수 작업을 진행했을 뿐만 아니라, EMR4 신규 생산라인을 개선하고 장비도 최적화해 효율성을 향상했습니다.

또한 IT 전자 업데이트와 서버 최신화로 시스템 안전성을 강화하는 한편, 전기 안전 공사를 병행하며 장비와 작업 환경의 안전 수준을 한층 더 끌어올렸습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 이천 공장은 하반기를 대비한 안정적인 설비 운영과 지속적인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반을 다졌습니다.

DE&I 우등생 포용·혁신 이끄는 Logistics

세플러코리아는 급변하는 비즈니스 환경 속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의 가치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배경과 경험을 가진 임직원이 공정하게 존중받으며 협력할 때 비로소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샘솟고 더 나은 성과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핵심 가치를 조직 내에 확산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고자, Logistics 부문에서는 지난 2023년부터 자발적으로 매년 DE&I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6월에는 앞선 워크숍에서 도출한 액션 플랜 중 하나인 '함께 하는 특별한 콘텐츠 진행'을 실현하고자 창원물류센터 임직원이 모여 클레이 사격 체험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서로 다른 배경과 능력을 갖춘 구성원과 협력할 때 얼마나 더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몸소 느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번 팀 빌딩 활동은 DE&I의 가치를 조직문화 속에 자연스럽게 녹여낸 우수 실천 사례입니다. Logistics 부문의 이러한 선도적 움직임은 DE&I의 의미를 일상에서 체감하는 데 큰 역할을 하는 만큼, 앞으로도 다양한 시도와 타부문과 조직 전반에 확산하기를 기대합니다.



'2025 글로벌 탠런트 페어' 참가

세플러코리아가 지난 5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5 글로벌 탠런트 페어(GLOBAL TALENT FAIR)'에 참가했습니다. 국내 대표 글로벌 채용박람회에 글로벌 인재 영입에 나선 것으로, 현장에는 인사 담당자와 채용 직무 실무자가 참석해 세플러코리아의 비전과 강점을 생생하게 전달했습니다. 참가자를 대상으로 ▲기업 소개 ▲이력서 검토 ▲채용 담당자와의 1:1 취업 상담도 진행했습니다.

'Open Talk with CEO' 첫 프로그램 개최



지난 7월 21일, 세플러코리아는 'Open Talk with CEO'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선보였습니다. 이는 HR Korea에서 추진하는 'Culture Transformation'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포용적인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마련한 CEO와의 소통 프로그램입니다.



전주 공장, IT 액세스 프로젝트 성료

세플러코리아 전주 공장의 'Shopfloor IT Access' 프로젝트가 지난 7월 성공적으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이는 디지털 전환을 위해 지난 4월부터 약 4개월간 진행해 온 프로젝트입니다. 기존에 IT 액세스 권한이 제한되어 있던 전문직 임직원에게 이메일 계정을 새롭게 제공하고 전자 게시판 등 디지털 도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프로젝트의 주요 성과로는 전자 게시판 활용도를 높여 커뮤니케이션 효율성을 증대하고, BYOD(Bring Your Own Device) 서비스를 확대한 점이 주목됩니다. 전문직 임직원이 교대근무로 출근하지 않는 날에도 회사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고, 긴급 공지 사항의 신속한 전파와 교대 조 간의 쌍방향 소통도 가능해졌습니다. 온라인 게시판의 경우 방문자 수가 전체 전주 공장 직원 수의 92.6%(199명)에 달하는 등 사용률이 매우 높습니다.

전주 공장의 이번 성과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 모든 임직원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었습니다. 세플러코리아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개선과 확산을 통해 더욱 편리하고 나은 근무 환경을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프로그램의 시작을 알린 이날에는 서울 여의도 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여성 임직원을 초청해 다양한 부서와 직급의 참석자가 함께 어울리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SHE - Share women's thought, Hear women's voice, Embrace our future'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참석자들은 격의 없이 의견을 나누고 회사의 미래를 함께 고민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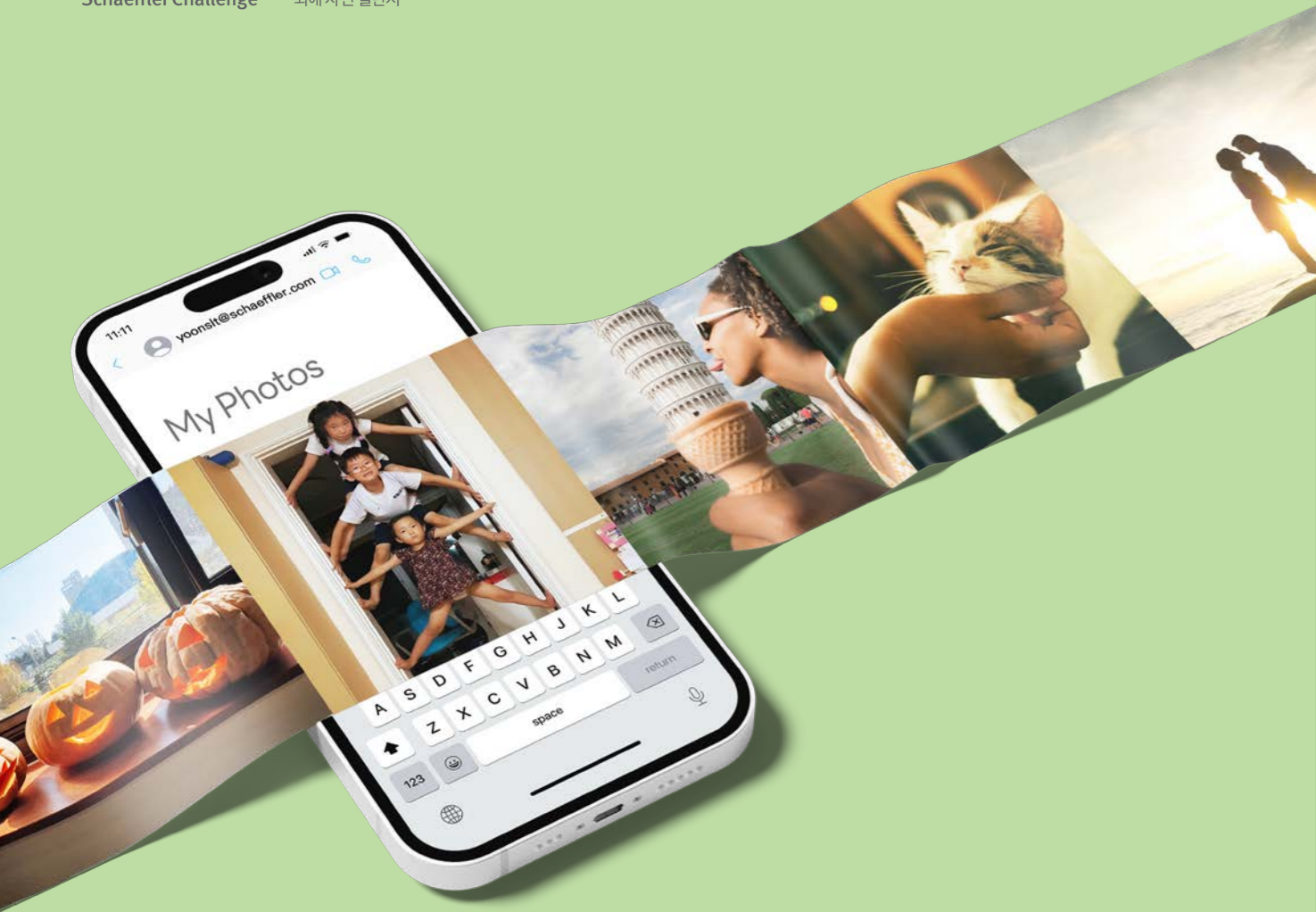
이와 함께 다양성과 포용성의 중요성을 공유하는 시간도 마련했습니다. 다양성은 성별·연령에 국한되지 않으며, 사고방식과 성향 등 여러 측면에서의 차이를 포용할 때 비로소 기업이 필요로 하는 혁신성이 발휘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다소 엉뚱하더라도 새로운 시각을 지녀야 조직에 활력을 더할 수 있다는 점도 언급하며, 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가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HR Korea는 이번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직원들이 네트워킹할 수 있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Logistics Korea 울산 통합 외주 물류창고 본격 가동

세플러코리아 Logistics 부문이 지난 8월 4일 울산 지역의 신규 통합 외주 물류창고 운영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2024년 4월 30일 세플러-비테스코 물류 통합 킷오프 이후 철저한 준비와 조율을 거쳐, 안정적으로 출하가 가능한 통합 물류체계를 성공적으로 구축한 것입니다.

이번 통합을 통해 두 창고를 하나로 합침으로써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공급망 일관성과 재고 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했습니다. 현재 울산 통합 물류창고에서는 현대자동차·현대모비스·현대트랜시스·현대글로비스·한국무브박스 등 주요 고객사를 대상으로, 창원·전주·안산·이천 등 국내 주요 생산 거점에서 출고한 제품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주된 납품 품목은 Bearings & Industrial Solutions(Wheel & Engine), E-Mobility, Powertrain & Chassis 사업 부문의 제품이며, 하루 평균 2~4회 고객사로 출하가 이뤄집니다. 재고 운영도 통합 창고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안정적인 공급망 운영과 더불어 고객 만족도 향상과 물류비 절감 효과도 기대됩니다.





세플러코리아 나의 취향 나의 감성 최애 사진 챌린지

여름휴가는 잘 다녀오셨나요? 가족과 사랑하는
연인과 친구들과 또는 혼자라도 좋은 것은, '여행'이라는 두 글자에
스민 설렘 때문일 겁니다. 이번 최애 사진 챌린지에서는
유독 여행지 풍경이 많습니다. 사진으로나마
그 시절, 우리들의 행복했던 순간을 되새겨 보면 어떨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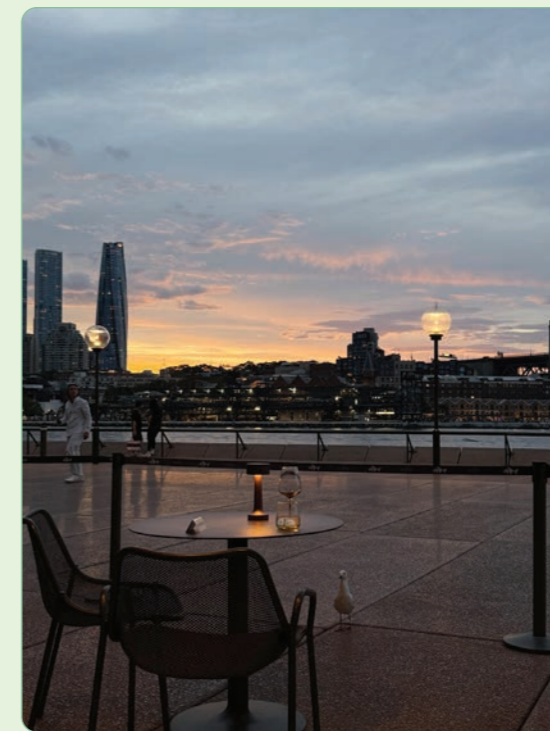


청량한 하늘과 웅장한 경복궁

하늘이 유난히 파랗던 날 경복궁을 찾았습니다.
언제 가도 고즈넉한 가운데 위풍당당한 조선 왕궁의
위엄이 느껴지는 곳인데요. 이날의 경복궁은 파란 하늘이
더해서 더욱 웅장하고 장엄함마저 깃들어 있었습니다.



문소현_이천 PEASE(SWI)



일상속 여유 한모금

'매직 타임(Magic Time)'은 해가
뜨거나 질 때 어스름한 빛이 아름답게
빛나는 시간대를 의미합니다.
'매직'이라는 이름처럼 일과를 마치고
주위가 어둑해지는 그 시간이 오면 누가
어떤 마술을 부렸는지는 몰라도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오늘 하루도 잘해온 나를
위한 응원의 시간이랄까요?



허가은_전주 MP&L



나는야 조개 사냥꾼!!!

작년 여름, 가족여행을 간 인천 을왕리에서 조개를 캐려다 찍은 사진입니다. 온몸이 진흙투성이가 되었지만 조개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대신 이렇게 멋진 사진을 건졌으니, 아쉬움도 없습니다. 볼 때마다 지난 여름이 떠오르며 기분 좋아지는 사진입니다.

조대휘_안산 BU EC / VTS



아이들을 품은 인도 거목

인도 벵갈루루 한 달 살기 중 가장 사랑했던 곳인 커본 공원(Cubbon Park)입니다. 1870년에 만들어진 도시공원으로 산책로도 정갈하고 곳곳에 벤치가 많아서 거닐기 참 좋은 곳입니다. 특히 이곳은 거목이 많기로 유명한데요. 나이와 덩치를 가늠할 수 없는 거목들은 언제나 아이들을 따뜻하게 품어 주었습니다.

이가은_서울 전략기획팀 및 ESG TFT



더없이 행복했던 웨딩 촬영

산은 나무가 있어야 살 수 있고, 배는 바람이 있어야 움직일 수 있고, 저는 아내가 있어야 삶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난생처럼 카메라 앞에서 몇 시간 동안 포즈를 취하는 게 어색하기도 했지만, 생애 단 한 번뿐인 웨딩 촬영이잖아요. 볼 때마다 '배시시' 웃음이 납니다.

이진형_이천 PS2

우리들만의 추억

회사 동료들과 주문 제작한 후드티셔츠를 입고 떠난 제주 여행. 다 이유가 있었죠. 바로 제주 무지개 해안도로에서 사진을 찍기 위한 우리들만의 계획이었습니다. 무지개 컬러에 딱 맞게 7명이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더없이 즐거웠던 여행이었습니다. MBTI는 제각각이지만 단 한 번도 다툼 적이 없는 좋은 동료들. 다음 여행 생각으로 벌써 설렙니다.

최용돌_이천 FF1 EMR4



Thanks & Quiz

기자단

- 서울 박지수 기자
- 창원 기대환 · 손강우 기자
- 안산 최진경 기자
- 전주 이세영 · 이옥균 기자
- 이천 윤일선 · 이민지 · 안버리 기자
- 연구소 김현용 기자

편집실

- 커뮤니케이션
- 민유정 팀장, 윤솔지 마스터
- 브랜딩 & 마케팅
- 이현기 팀장, 김채정 프로

지난 호 당첨자 명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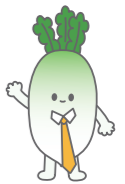
- 김하윤(이천 BU VBC R&D Korea)
- 심정한(창원 Segment Bear. & Ind. Sol.)
- 전용식(안산 공정기술)
- 장현수(서울 Application Engineering)
- 이슬(이천 Plant SCM)
- 정봉구(서울 시판영업)
- 황호수(전주 휠베어링 세그먼트)
- 장수권(부산 OEM Sales 2)
- 강영욱(서울 Central Controlling)
- 손용암(창원 테이퍼러베어링 세그먼트)
- 이현진(이천 CT ENC TPM)
- 김유미(전주 Order Processing B&IS Korea)

* 사보 퀴즈 및 챌린지 코너의 경우, 1가구 1부상 기준으로 당첨자 상품이 지급되는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Nonsense Quiz

답을 알고 나면 '피식' 웃음이 터질지도 모를 '그림 난센스 퀴즈'입니다. 셰플러인들의 센스와 상상력을 마구 발휘해 정답을 맞춰보세요. 정답이 아니더라도 반짝이는 아이디어와 웃음을 주는 오답도 환영합니다. 자~~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1.



2.



지난 호 정답

- Quiz 1. 파스타
- Quiz 2. 귀속말

참여 방법



스마트폰 문자 보내기로 참여하는 방법

- 1) 받는 사람에 yoonslt@schaeffler.com 이메일 기입
- 2) 필수 내용 작성하기_ 사보 퀴즈 참여 ① 퀴즈 정답 ② 직원 성함 ③ 사업장 위치 ④ 부서명 ⑤ 스마트폰 번호
- 3) 문자 보내기!



GREEN BOX FOR NOx

세플러 비테스코 제품 박스로 검증된 품질

세플러 자동차 라이프타임 솔루션 사업 부문은
세플러 비테스코 녹스(NOx) 센서를 통해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장합니다.
OE 품질의 세플러 비테스코 녹스(NOx) 센서는 질소 산화물(NOx)
정밀 측정의 표준을 선도하며, 엄격한 환경 규제 준수를 돕습니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OE 품질의 세플러 비테스코 제품을 만나보세요.



vehiclelifetimesolutions.schaeffler.kr/ko/vitesco

vitesco
TECHNOLOGIES



SCHAEFFLER



GREEN BOX FOR NOX

세플러 비테스코 제품 박스로 검증된 품질

세플러 자동차 라이프타임 솔루션 사업 부문은
 세플러 비테스코 녹스(NOx) 센서를 통해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장합니다.
 OE 품질의 세플러 비테스코 녹스(NOx) 센서는 질소 산화물(NOx)
 정밀 측정의 표준을 선도하며, 엄격한 환경 규제 준수를 돕습니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OE 품질의 세플러 비테스코 제품을 만나보세요.



SCHAEFFLER



vehiclelifesolutions.schaeffler.kr/ko/vitesco

VOL. 81

Schaeffler Korea Plus One

세플러 + 윈

VOL. 81 / SUMMER & AUTUMN 2025

Pioneer



SCHAEFFLER

Thanks & Quiz

기자단

서울 박지수 기자
 창원 기대환·손강우 기자
 안산 최진경 기자
 전주 이세영·이옥균 기자
 이천 윤일선·이민지·안벼리 기자
 연구소 김현용 기자

편집실

커뮤니케이션
 민유정 팀장, 윤솔지 마스터
 브랜딩 & 마케팅
 이현기 팀장, 김채정 프로

지난 호 당첨자 명단

김하윤(이천 BU VBC R&D Korea)
 심정한(창원 Segment Bear, & Ind. Sol.)
 전용식(안산 공정기술)
 장현수(서울 Application Engineering)
 이슬(이천 Plant SCM)
 정봉구(서울 시판영업)
 황호수(전주 휠베어링 세그먼트)
 장수권(부산 OEM Sales 2)
 강영욱(서울 Central Controlling)
 손용암(창원 테이퍼롤러베어링 세그먼트)
 이현진(이천 CTENC TPM)
 김유미(전주 Order Processing B&IS Korea)

* 사보 퀴즈 및 챌린지 코너의 경우, 1가구 1부상 기준으로 당첨자 상품이 지급되는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Nonsense Quiz

답을 알고 나면 '피식' 웃음이 터질지도 모를 '그림 난센스 퀴즈'입니다. 셰플러인들의 센스와 상상력을 마구 발휘해 정답을 맞춰보세요. 정답이 아니더라도 반짝이는 아이디어와 웃음을 주는 오답도 환영합니다. 자~~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1.



2.



지난 호 정답

Quiz 1. 파스타
 Quiz 2. 귀속말

참여 방법



스마트폰 문자 보내기로 참여하는 방법

- 1) 받는 사람에게 yoonslt@schaeffler.com 이메일 기입
- 2) 필수 내용 작성하기_ 사보 퀴즈 참여 ① 퀴즈 정답 ② 직원 성함 ③ 사업장 위치 ④ 부서명 ⑤ 스마트폰 번호
- 3) 문자 보내기!



Pioneer

We pioneer motion에서
 'Pioneer'는 셰플러가 가진
 강력한 기술력의 다른 이름입니다.
 꾸준한 혁신을 통한 기술 진보.
 셰플러는 항상 한 발 더 앞서 나가고,
 지금에 안주하지 않으며,
 혁신으로 다듬은
 제품과 서비스로 고객을 만납니다.

셰플러+원 바로가기



사보 <셰플러+원>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필자의 의견으로 셰플러코리아와 의견이 다를 수 있으며, 사용 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발행일 2025년 9월 12일(통권 제81호)
 발행인 이병찬
 편집인 민유정, 윤솔지, 이현기, 김채정
 발행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파크원 타워1 32F
 기획·디자인 PEOPLE PAGE(대표전화 02.6674.0111)